

# 인간 심리에 대한 연구도구로서의 사진: 우정 사진을 예로

문경숙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 Photography as a research tool for studying human psychology: Photos of friendship as an example

Kyoung-Suk Moon  
Dept. of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요약** 지난 반세기 동안 인간 심리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 도구들의 창출을 가져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 현상을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검사도구들이 개발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인간 심리에 대한 양화된 자료의 양산을 가져왔다. 그러나 인간 경험의 주관성과 세밀함을 고려해 보건데 개인의 독특한 경험 세계와 이를 해석하는 관점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은 이런 맥락에서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는 도구로 사진을 제안하고, 사진의 연구도구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파고든 사진 찍기 일상은 사진이라는 예술 활동을 대중 친화적으로 만들었고, 만약 이러한 사진 찍는 활동이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는 연구도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인간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진이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과 해석을 얼마나 충실히 담아내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대학생 두 명의 우정에 대한 사진을 소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진의 연구도구 가능성을 피력하였다.

**주제어** : 인간 심리, 연구도구, 사진, 우정, 주관적인 경험

**Abstract** For the past half century, researches on human psychology have witnessed the flourish of various research tools in this area. Many psychological measures were developed to get objectified data and this trend has lead to the abundance of quantified results. However, considering subjectiveness and refinements of human experience, the research focused on individual's unique perspectives and explanations is needed also. In this vein, this study proposed the usefulness of photography as a research tool for human psychology. With the wide spread of smart phone, taking photo became the everyday activity for modern people and also a part of a public art. If photo could play an efficient and unique role to study human psychology, the depth and width of human understanding might change dramatically in positive way. Two friendship photos were presented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photo as a research tool and final considerations of using photo were suggested briefly.

**Key Words** : human psychology, research tool, photography, friendship, subjective experience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5A8022660)

Received 16 November 2015, Revised 8 January 2016

Accepted 20 March 2016, Published 28 March 2016

Corresponding Author: Kyoung-Suk Moon  
(Wonkwang University)

Email: moonks64@gmail.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우리는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미지들이 흘러넘치고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에 주의를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백문이불여일견(百聞이不如一見)이라는 속담도 글자보다는 그림, 즉 이미지의 중요성을 피력한 말이다. 백번의 물음을 하나의 이미지가 대신 할 수도 있다는 이 말은 그만큼 이미지의 정보전달력이 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지 중에서도 사진은 현대인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성능이 날로 향상되면서 우리는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찍고 저장하고 수시로 꺼내본다. 사람들은 사진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담긴 것을 사진으로 찍기도 한다. 이처럼 사진이 인간의 심리에 담긴 것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한다면 연구의 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사진이나 그림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된 지는 오래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주제통각 검사(TAT: Thematic Apperception Test)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애매한 그림이나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림에서 읽어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심리상태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검사도구이다. 사람들의 마음상태가 그림을 바라보는 시각에 투사된다고 가정하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의 과거 경험과 관련된 심리적 상태가 녹아있다고 가정한다.

또 다른 예로 집-나무-사람 검사(House-Tree- Person test)가 있다. 이 검사는 아동에게 백지를 주고 이 세 가지 것을 그려보라고 한 후, 아동이 그린 그림을 통해 아동의 심리상태를 읽어내는 검사이다. 집-나무-사람 검사는 TAT와 다르게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림을 통해 표현해내도록 하고, 그 그림 속에 담긴 숨은 심리를 파악해내는 방법이다.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언어가 전달하지 못하거나 전달할 수 없는 것들,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접근하기 위해 이미지화된 방법이 적절하기 때문이다[1]. 인간의 심리생태

를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여지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다. 인터뷰처럼 언어가 매개한 방법을 사용하여 인간의 심리에 접근하는 방법은 말이 어눌한 사람, 어휘력이 부족한 사람, 언어구사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 마주 앉기는 했지만, 어색하고 낯선 분위기는 말문을 닫아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언어구사력이 뛰어난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어 자체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자신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어렵기도 하다. 어떤 경우에는 언어보다 이미지가 전달력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2]. 이런 현상들은 인간의 심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사진과 같은 시각정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진단의 정확도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됨을 말해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인간의 심리에 대한 연구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하여 이미지화된 자료 수집 방법 중 사진의 유용성을 타진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중의 하나는 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었다. 청소년이 낯선 분위기를 깨뜨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청소년은 자신의 심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청소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막하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만약 인간 심리에 대한 연구에서 언어의 보조수단으로 혹은 대체수단으로 사진이 사용된다면 자신의 심리에 대한 표현이 더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연구에서 살펴 보려고 했던 것을 더 잘 탐구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는 사람들의 사진 찍는 활동을 일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 사진이 인간 심리에 대한 탐구방법이 될 수만 있다면 편리성과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본 논문은 사진이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 2. 사진의 연구도구 가능성

시각자료를 연구도구로 제안하는 흐름은 21세기에 들

어서면서 활발해졌다. 외국의 연구자들[3,4]에 의해서 소개되기 시작한 시각연구방법(visual methodology)은 기존의 연구방법이 알아내기 어려운 혹은 알아낼 수 없었던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놓치고 가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연구자는 연구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할 때 자신이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지를 생각해야만 한다.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인간 심리를 연구하기 위해 그동안 주로 사용된 방법들은 전문가들이 검사 도구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었다.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거나 타당화 작업을 거친 검사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검사도구 속에 비쳐진 인간심리를 연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가 직접 자신의 심리상태를 표출해내는 연구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인간 심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연구자 주관에서 참여자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사진기를 들고 자신의 심리상태가 반영된 사진을 찍는 아동은 검사 실실을 받는 피험자가 아니라 주체적인 입장이 된다[5]. 타인이 만들어놓은 검사도구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심리상태를 대변해주는 사진을 직접 찍게 될 경우, 사진의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는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주어진 보기들 중에서 고르는 것보다는 직접 쓰라고 할 때 더 풍부하고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사진을 이용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찍혀진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6]과 직접 사진을 찍게 하는 방법[7,8]이 있다. 전자의 방법은 기존의 방법, 즉 이미 연구자에 의해 만들어진 검사지를 이용한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 이미 만들어진 도구가 사진이라는 것 뿐, 연구참여자에 의해 생산된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기존의 연구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진이 앞서 언급한 주체적인 입장으로서의 자료 생산자라는 측면을 반영하려면 후자의 방법이 연구도구로서의 사진의 의미에 더 부합하는 방법이 된다.

왜 그렇게 찍었는지에 대한 주관적 해석 속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있다. 사진을 연구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수면위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이 반영된 사진이 연구도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꽃을 찍어도 꽃 속에 숨겨진 뜻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받고 싶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아했던 꽃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인간의 경험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화된 수치로 인간심리를 접근하게 되면 놓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인간의 심리를 측정하게 되면 세밀하고 자세한 개인의 경험을 살필 수 없게 된다. 이런 단점을 사진이라는 도구가 극복하게 해줄 경우 사진의 연구도구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사진의 연구도구로서의 또 다른 가능성은 사진을 통해 인간의 숨겨진 정서를 외현으로 표출해낼 경우, 중간에 검사도구와 같은 매개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직접적이고 불편과적 [9]이라는 데 있다. 자신의 마음을 중간 매개체 없이 표현하는 사진은 사진을 찍는 사람의 주체적인 목소리가 담겨진 텍스트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진은 이야기가 담긴 텍스트가 되는 것이다[10]. 특히 사진 속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은 자신의 삶을 소재로 다시 구성한 이야기가 되고, 이런 이야기는 자신의 삶을 정연하게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 이런 이유로 사진은 언어적 제약을 뛰어 넘는 훌륭한 연구도구가 된다.

사진을 인간 마음의 거울 혹은 복사본으로 보는 측면보다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에 대한 해석으로 볼 때 사진의 연구도구로서의 가능성은 담보된다. 이런 맥락에서 권효숙[10]은 사진을 ‘거울’의 의미보다는 ‘해석’의 의미로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특정 대상 혹은 사건에 대한 사진은 사진을 찍고자 하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기 때문에[11], 사진은 인간의 심리상태를 이해하는 훌륭한 창이 된다.

연구도구로서의 사진의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진을 이용한 포토에세이나 포토인터뷰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3,4]. 사진에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 특정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과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연구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사진에 찍힌 사물이나 인물에 대한 해석과 관점을 간단한 글로 작성하는 포토에세이는 이런 측면에서 유용하다. 사진 속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구체화하면서 심리상태를 간단한 글로 나타낼 경우,

사진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진을 찍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접할 수 있게 된다.

포토인터뷰는 사진을 인터뷰의 촉매제로 삼음으로써 [10] 인터뷰과정을 풍부하고 매끄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인터뷰에서 사진을 이용할 경우 사진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연구 참여자로부터 이야기를 더 잘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1,12]. 이런 이유로 포토인터뷰는 포토유도법(photo-elicitation)이라고도 불린다.

사진을 연구방법으로 이용하자는 주장과 실제 연구에 적용한 예는 북미와 유럽에서 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예술교육과 창의성교육의 차원에서 사진 찍기와 사진 읽어내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13]와 연구 장면에서 사진을 이용하자는 논의[10,11]가 시작되고 있다. 질적연구의 활성화와 함께 연구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사진기법은 지금까지 기술한 특성들만 보더라도 그동안의 연구관행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연구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칫 사진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미지 정보로 착각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사진을 이용한 질적으로 담보된 연구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

### 3. 우정에 대한 사진 찍기

우정은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특히 우정은 사회성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14] 친구관계 속에서 싹트는 우정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인간에게 필요한 사회화 에이전트 중에서 친구는 부모와 동급으로 상정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15]. 부모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친구가 채워주기도 하고, 부모와 갈등이 있을 때 친구가 안전애착의 기지(secure base)를 제공하기도 한다[16]. 소속감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원이기도 한 친구는 그 관계의 질적 차이가 다양하지만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심리적 자산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한 연구

는 많이 있었지만[17,18,19,20,21,22], 정작 사람들이 무엇을 우정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정은 정의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내기도 어려운 추상명사이다. 우정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단어이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우정이 어떤 의미인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는다.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우정은 인간의 삶에 항상 존재하는 심리구인이지만, 우정에 대한 정의는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도대체 우정이란 무엇일까?

본 연구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우정에 대한 사진 찍기를 시도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앞서 기술한 사진의 연구도구 가능성을 더 구체화하고 우정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도 살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의 우정에 대한 회고적인 사진찍기를 주문했고 학생들은 사진과 함께 간단한 포토에세이를 작성하였다.

우정에 대한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고, 이러한 각기 다른 경험은 다른 정의로 연결될 것이다. 우정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이 사진 속에 녹아들면서 추상명사인 우정은 물질명사화 될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살아 있는 경험이 사진으로 구체화되고 가시화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심리의 한 부분을 정리해보는 기회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우정에 대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우정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되짚어보는 기회도 갖게 될 것이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도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정에 대한 사진 찍기는 연구참여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활동임에는 틀림없다. 다음은 두 학생의 우정에 대한 사진과 해석이다.

우정을 차선에 비유한[Fig. 1] 한 학생은 자신이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로부터 당했던 억울한 경험을 호소했다. 중학교 때 음악 수행평가로 합창 시 반주를 맡게 된 이 학생은 뒤늦게 주어진 악보로 충분한 연습시간을 갖지 못했다. 같은 모둠에 있었던 친구들은 이런 사정을 도외시한 채 반주를 잘 못했다며 핀잔을 주었고, 이것은 우정을 가장한 횡포로 받아들여졌다. 평소에 “벽이 없는 사이”가 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의 부탁은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처한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친구들이 알아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친하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무분별한 침해는 우정에 금이 가게 만들었고, 우정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정이라는 포장지”안에는 “나의 영역을 존중 받지 못하는” 침범이 자리 잡고 있었다. 친구와 하나 되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던 이 학생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우정의 기본이라는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단, 친구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신호를 주어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는 신호를 주고 난 후에 상대방 차선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친구 간에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허락을 구한 후에 영역을 넘나드는 배려가 우정의 필수 조건임을 사진으로 표현했다.



[Fig. 1] Traffic line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 그 사람과 우정을 쌓게 되는 것은 마치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여 우정 사진으로 로또를 찍은[Fig. 2] 여학생의 시각도 흥미롭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초등학교 때 전학을 가게 된 이 학생은 이전 학교에서 사귀었던 친구와 관계가 점점 흐트러지면서 결국에는 우정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나 새로 전학 온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우정을 쌓아가면서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마치 내가 가진 번호와 추첨된 번호가 맞아야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우정도 서로에게 당첨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또한 현재 가장 친한 친구 중의 한 명은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은 우정을 유지해오고 있는 친구다. 서로 입학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달라도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정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희박한 확률을 뚫고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행운을 느끼게 해주었다. 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친구가 알고 보니 중학교

때 단짝이던 친구와 친구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도 로또 당첨처럼 느껴졌다. 3명이 확인되지 않은 친구관계에 있었던 것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로또 당첨의 기회를 잡은 것처럼 느끼게 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희박한 확률을 누리며 사는 행운아라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Fig. 2] Lotto

차선을 찍은 학생에게는 차선이 우정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의 의미로 해석되었고, 로또를 찍은 학생에게는 변치 않는 우정을 가진 본인이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다고 설명했다. 우정으로 무엇을 찍을까 고민하는 순간부터 사진 속에 찍힌 사물이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까지, 언어만을 사용한 인터뷰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삶의 측면들이 사진 찍는 활동 중에 부각되었고 간과하기 쉬웠던 감정선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만들었다. 차선을 찍은 학생에게는 사진 찍는 작업을 통해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을 현재의 시점에서 정리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과거의 사건을 현재라는 시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과거의 자신과 타협하고 자신이 자신을 다독이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23]. 로또를 찍은 학생의 경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확률적으로 작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정에 감사하고, 스스로를 고마워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두 학생의 우정 사진 찍기를 통해 사진이 인간의 심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측면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 결론

사진을 찍는 사람에 따라 같은 피사체도 다르게 찍히고, 같은 사진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르고 읽는 것이 다른 것은 사진의 매력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진으로 사람의 마음을 찍어보면 어떨까? 언어보다 전달력도 빠르고 사람들의 뇌리에 이미지로 다가가기 때문에 정보 전달 효과가 뛰어난 사진이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서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사진이 순간을 포착한다고 말하지만, 사진은 오랜 시간에 걸친 고민의 흔적을 찍어내기도 하고 개인적인 염원을 찍어내기도 한다. 액자 속에 담긴 정물로서의 사진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 안에 숨겨진 심리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훌륭한 연구 도구로 사진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진 찍기의 학문적 역할에 대한 탐구를 시도해 보았다.

우리가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연구의 주제가 되는 심리현상을 소유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의 심리에 더 다가가는 방법을 찾는 것은 연구자로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동안 인간의 심리를 알아내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고안되었지만 어떤 연구방법도 인간의 심리를 완벽하게 읽어낼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의 연구방법과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의 사진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은 흥미 있는 시도임에는 분명하다. 최연철과 신설아[24]는 사진을 유아면접의 도구로 사용하자 면접자는 질문을 하고, 유아는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유아의 생각과 느낌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사진을 이용해 실험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24].

앞서 제시한 우정 사진의 예는 사진의 연구도구 가능성을 잘 나타내준다. 우정에 대한 사진 찍기 없이 우정을 주제로 인터뷰를 했을 때보다 학생들의 우정관에 대한 접근성은 현저히 차이가 났다. 무엇을 우정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글쎄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라서” 등과 같은 준비되지 않은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는 우정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보라고 하면 우정에 대한 사진을 찍

으면서 우정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무엇으로 우정을 나타낼지 고민하게 되며, 어떻게 우정을 표현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곱씹어 보게 된다. 결국 사진을 찍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우정과 관련된 사건을 떠올리며 우정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내리는 시간을 가져보기 때문에 준비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숨겨져 있었고 덮여 있었던 인간의 내면을 사진 찍기라는 작업을 통해 벗겨내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하여 학생들은 자신이 찍은 사진에 대한 간단한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심리를 이해하는 정도도 더 깊어지게 되었다. 즉, 우정에 대한 사진 찍기는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기회로 사용된 것이다.

타인에 대한 이해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이해의 수단을 다양화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진을 찍는 행위는 자신을 표현해내고 자신을 탐구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13] 교육현장에서 사진을 사용하게 될 경우 주변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촘촘해지고 민감해지게 된다. 교육과 예술의 융합은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사진은 또한 인간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사건이나 느낌이 현재의 대상물에 투영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찍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 자체에 깊은 사고와 성찰이 자리 잡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진은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훌륭한 대안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심리를 순화시키는 기능도 하는 연구 도구라고 할 수 있다.

####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3S1A5A8022660)

#### REFERENCES

- [1] P. Tinkler, Using photographs in social and historical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2013.

- [2] J. Kim, & Y. Kim, An inquiry on the educational power of the photograph from Walter Benjamin's perspective. *Anthropology of Education*, Vol. 12, No. 2, pp. 103-135, 2009.
- [3] G. Rose, *Visual methodologies*(3rd Ed.). Thousand Oaks, CA: Sage, 2012.
- [4] S. Pink(Ed.), *Advances in visual methodology*. Thousand Oaks, CA: Sage, 2012.
- [5] M. Kim, & Y. Tschong, Meaning and value of photography in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Idea*, Vol. 24, No. 3, pp. 47-63, 2010.
- [6] L. Longoria, & I. Marini, Perceptions of children's attitudes toward peers with a sever physical disabil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Vol. 72, No. 3, pp. 19-26, 2006.
- [7] M. P. Allen, Momentum: A photo essay of the transgender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over 30 years, 1978-2007. *Sexuality Research & Social Policy*, Vol. 4, No. 4, pp. 92-104, 2007.
- [8] P. F. Casy, & S. J. Dollinger, College students' alcohol-related problems: An autophotographic approach. *Journal of Alcohol and Drug Education*, Vol. 51, No. 2, pp. 8-25, 2007.
- [9] D. Schwartz, Visual ethnography: Using photography in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Sociology*, Vol. 12, No. 2, pp. 119-154, 1989.
- [10] H. Kwon,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using photography as tool for multicultural communication.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 19, No. 3, pp. 227-247, 2011.
- [11] Y. Choi, Photography as a research method for qualitative inquir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0, No. 4, pp. 89-113, 2005.
- [12] D. Harper, Talking about pictures: A case for photo elicitation. *Visual Studies*, Vol. 17, No. 1, pp. 13-26, 2002.
- [13] S. Kim, & H. Ahn, A study on a photo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self-esteem and self-expression of the youth: A case of LTP. *Journal of Art Education*, Vol. 42, pp. 149-180, 2015.
- [14] K. Rubin, W. Bukowski, & J. C., Bowker, Children in peer groups. In M. C. Bornstein, & T. Leventhal(Eds.), *Ecological settings and processes*. Volume 4 of the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and developmental science*(7th ed., pp. 175-222). Editor-in-Chief: R. M. Lerner. Hoboken, NJ: Wiley, 2015.
- [15] J. R. Brauer, & J. De Coster, Social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L Revisiting parent and peer influence during adolescence. *Youth and Society*, Vol. 47, No. 3, pp. 374-394, 2015.
- [16] K. H. Rubin, B. Fredstrom, & J. Bowker, Future directions in friendship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Social Development*, Vol. 17, pp. 1085-1096, 2008.
- [17] W. Hartup, & N. Stevens, Friendships and adaptation in the life course.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1, pp. 355-370, 1997.
- [18] T. J. Dishion, G. R. Patterson, M. Stoolmiller, & M. L. Skinner, Family, school, and behavioral antecedents to early adolescent involvement with antisocial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7, No. 1, pp. 172-180, 1991.
- [19] S. Oh, & S. Lee, The relations between theory of mind and bullying/defend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Moderation effect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2, No. 3, pp. 149-169, 2011.
- [20] D. Kim, & K. Lee, Relation between peer status and aggressivenes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ed on likeability and popularity.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23, No. 2, pp. 175-194, 2010.
- [21] A. M. Ryan, The peer group as a context for the development of young adolescent motivation and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Vol. 72, No. 4, pp. 1135-1150, 2001.
- [22] E. R. Altermatt, Capitalizing on academic success: Students' interactions with friends as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 Vol. 31, No. 1, pp. 174-203, 2011.
- [23] K. C. McLean & M. Pasupathi, Process of identity development: Where I am and how I got there.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Vol. 12, pp. 8-28, 2012.
- [24] Y. Choi, & S. Shin, Getting closer to children's everyday life through photo-interview.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8, No. 2, pp. 129-152, 2013.
- [25] E.-H. Park, H.-S. Kim, & J.-O. Kim. The effect of convergence action learning techniques in simulation clas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241-248. 2015.
- [26] Y.-A. Jung. A study on the education model for information literacy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2, No. 1, pp. 15-20. 2011.

#### 문 경 숙(Moon, Kyoung Suk)



- 1988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사)
- 1991년 8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석사)
- 2005년 12월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Ph.D)
- 2011년 4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청소년발달(정체성, 정서)
- E-Mail : moonks64@gmail.com